

엘리압을 피하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요일 2:15)



조정민 (CGN-TV 사장, 본 회 이사,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원장)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기준’이었다. 그렇다면 세상의 기준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움직일까?

세상은, 미디어가 그 기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미디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미디어는 계속해서 변화한다. 이러한 미디어의 새로운 변화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미디어는 변화를 선도하는 메시지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날, 이 세상 미디어의 본질은 육신의 정욕이 기준이다.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그 주축을 이룬다.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훌륭한 배우자, 든든한 재산, 자랑할 만한 업적 등을 가장 높이 평가하고 의지한다. 또 사람들은 미디어를 통해 게임이나 드라마를 밤새워 보면서 정신을 빼앗긴다. 하지만 성경을 밤새워 보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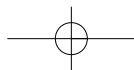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요일 2:16)

그러므로 무너진 기준과 뒤집혀진 가치관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변해야 한다. 미디어는

개혁되지 않는다. 다만 ‘미디어 종사자’가 바뀔 뿐이다. 그 이유는 인간이 미디어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디어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미디어의 근원은 바로 인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인간은 타락했으며 이렇게 미디어의 근원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인간을 통해 전해지는 미디어의 메시지도 오염된 것만 나온다.

사람은, 본시 마음에 가득 찬 것과 생각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다. 1차 미디어인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오염되면 그를 통하여 나오게 되는 2, 3차 미디어 역시 오염이 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거듭 강조하건데 미디어는 절대로 개혁되지 않는다. 다만 미디어 종사자들이 개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성경 이야기로 예를 들어 본다. 엘리압은 이새 집안의 맏형으로 다윗의 제일 높은 형이었다. 그는 출중한 외모는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만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을 자를 찾는다고 했을 때, 모두들 당연히 엘리압이 선택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인간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며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 엘리압의 마음속에는 다윗을 향한 분노가 있었을 것이





다. 성경에 보면, 엘리압이 다윗에게 화내는 장면이 나온다. 하지만 다윗은 엘리압과 싸우지 않았다. 다윗이 상대해야 할 대상은 골리앗이지 엘리압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야 할 사람이다.

골리앗은 또한 우리가 싸워야 할 목표이기도 하다. 그러나 엘리압은 우리가 피해야 할 대상이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수많은 엘리압이 우리를 붙잡을 것이다. 나를 둘러싼 수많은 외적, 상황적 엘리압이 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내 안에 수많은 엘리압이 발목을 잡으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엘리압과만 싸우느라 골리앗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

다윗이 엘리압과 싸우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세상이라는 엘리압과 내면의 엘리압과 싸우고, 제거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의 본질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사랑은 마음을 주는 것이다. 마음을 주고 나면 다 준 것이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할 때, 보이는 것은 따라올 것이다.

세상은 한 사람에게 의해서 일어설 수도, 무너질 수도. 어떤 분야이든지 1만 시간을 투자한다면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데 1만 시간이란 하루에 세 시간씩 10년을 보내는 시간이다. 그 정도의 시간이 쌓였을 때 우리가 해내지 못할 일은 없을 것이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조약돌 하나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다윗은 그 순간을 위해서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도 60만개 이상을 돌을 던진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의 대적과 싸우기에 앞서 자신부터 끊임없이 훈련해야 한다. 영성과 실력은 함께 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돌을 던졌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양을 쳤던 다윗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미래를 준비하며 연단하는 삶이 필요하다.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지라도 인생이 실패하지는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먼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 그리고 실력을 연마하라. 그리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도구로 강력하게 쓰임 받게 되길 소망한다.